

황룡사지 폐와무지출토 신라와당 皇龍寺址 廢瓦무지出土 新羅瓦當

申 昌 秀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目 次

序 言	3.廢瓦무지出土 瓦當의 年代問題
1. 廢瓦무지 調査概要	結 言
2. 廢瓦무지出土 瓦當	

서언(序言)

황룡사(皇龍寺)는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창건되어 고려시대(高麗時代)까지 존속했던 유적으로 1976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그동안 수만점에 이르는 각종 기와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들 기와 중 건물지붕에 장식되었던 각종 문양이 새겨진 와당(瓦當)과 장식기와에 있어서는 창건 당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각 시대에 사용되었던 많은 자료들이 출토되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유적조사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기와들이 출토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기와에 관한 연구 또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¹⁾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연구업적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라기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져서 이에 관계되는 논문이 여러편 발표되었다?²⁾ 그러나 지금까지 출토된 대부분의 기와들은 사지(寺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수습되거나 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한 것이라 할 지라도 실연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여 기와의 편년에 있어서 주로 와당(瓦當)에 새겨진 문양의 형식분류에 의한 상대편년에만 의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 朴容填, 〈百濟瓦當에 관한 研究〉 《公州教育大學論文集》 5輯, 1968
朴容填, 〈百濟瓦當의 體系的 分類-수막새기와를 中心으로〉 《百濟文化》 7,8合輯 公州師大, 1975
金和英, 《韓國蓮花文研究》 梨花女子大學校 1976
金和英, 〈統一新羅時代蓮花文研究〉 《梨大史苑》 7輯, 1968
金和英, 〈三國時代蓮花文研究〉 《歷史學報》 34輯, 歷史學會 1967
濱田耕作, 《新羅古瓦의 研究》, 東京帝國大學, 昭和 9
關野貞, 《考古學講座 瓦》, 雄山閣, 東京, 昭和 6

2) 金誠龜, 〈雁鴨池出土古式瓦當의 形式的 考察〉 《美術資料》 29호, 國立中央博物館, 1981
金誠龜, 〈統一新羅時代의 瓦磚研究〉 《考古美術》 162,163 韓國美術史學會, 1984
金誠龜, 〈統一新羅時代 瑞島文圓瓦當小考〉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4
尹根一, 〈統一新羅時代瓦當의 製作技法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1978

물론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수많은 기와들 가운데도 분명하게 실연대를 알 수 있는 기와는 거의 없다. 황룡사지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에 소실되어 폐사된 이래 발굴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도 몇몇 건물지를 제외하고는 민가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란이 심하여 출토된 기와의 층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신라와당(瓦當)들은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의 생활면인 구지표(舊地表)아래 곳곳에서 발견된 폐와(廢瓦)무지에서 일괄로 출토된 것들로 여기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이 모두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 진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함께 사용되었던 기와들이 건물의 개축이나 변화(飜瓦)때 일시에 폐기되어 묻혔던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된 기간내에 사용한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지 생활면위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된 유물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신라기와의 편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들과 본고에 소개하고자 하는 폐와무지출토 와당(瓦當)들은 이미 출간된 보고서³⁾에 수록된 것이지만 보고서의 성격상 편년이나 종합적인 고찰을 생략하고 출토된 와당(瓦當)의 소개에만 그쳤기 때문에 이 폐와무지출토 기와들을 정리하여 학계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우선 신라기와들만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몇 개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을 정리하여 이 지면을 빌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폐와(廢瓦)무지 조사개요(調查概要)

황룡사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라 진흥왕 14년(A.D 553)에 창건되어⁴⁾ 고려 고종(高宗) 25년(A.D 1238)에 몽고(蒙古)의 병화(兵火)로 소실된⁵⁾ 신라 최대의 가람(伽藍)으로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지에는 규모와 배치가 기본적으로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 선후관계가 있는 2개의 가람지(伽藍址)가 중복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창건가람(創建伽藍) 완성후 단계적으로 건물들이 확장되고 또 새로운 건물들이 배치되면서 완성을 보게되는 중건가람(重建伽藍)은 수세기 동안 존속되면서 전체적인 가람배치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건물지기단이 여러번에 걸쳐 중창 또는 개축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각 건물지에 대한 토층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황룡사가 세워지기 전 이 지역일대에 원래 지반(地盤)은 빨흙이 두껍게 퇴적된 늪지였으며 이 늪지를 매립하고 평탄한 대지를 만들어 그 위에 창건가람(創建伽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중건가람(重建伽藍)의 탑지(塔址)와 금당지(金堂址)는 건물이 들어설 자리의 지반을 모두 파내고 다시 기초를 다져 만든 굴광기단(掘廣基壇)⁶⁾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는 창건가람의 탑지(塔址)와 금당지(金堂址)유구는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토층조사 도중 앞에서 설명한 중건가람의 동금당지창건기단(東金堂址創建基壇)을 비롯한 몇 개의 건물지 기단토 내에서 소량의 와당편(瓦當片)들이 출토되었으며 한편으로 사지의 구지표하(舊地表下) 여러 곳에서 폐와(廢瓦), 폐전(廢塼) 또는 폐토기(廢土器)들이 묻힌 노폐물(老廢物)무지가 발견되었다. 이 중 폐와(廢瓦)무지는 소량의 토기

3) 金正基外, 《皇龍寺址發掘調查報告書 I》, 문화재관리국, 1984

4) 一然, 《三國遺事》 卷第四 新羅本紀 眞興王條 「十四年春二月 王命所司策新宮於月城東 黃龍見基地 王疑之 改爲佛寺 賜號曰皇龍」

5) 《高麗史》, 世家 「夏閏四月蒙兵至東京燒皇龍寺塔」

6) 日本式 표현인 掘り込み基壇을 말하는 것으로 金正基文化財研究所長이 고쳐부른 용어이다.

들이 섞여 있을 뿐 폐와(廢瓦)들 만이 묻힌 것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폐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건물지 주변의 가까운 장소에 한 두군데 땅을 파고 한꺼번에 묻어버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각 폐와무지의 윗층으로는 사지의 생활면인 구지표층(舊地表層)이 형성되어 있어 교란된 흔적이 없고 또 이러한 폐와무지들은 이 사찰이 수세기에 걸쳐 존속되었던 것인 만큼 각 시기에 따라 하나 둘씩 생겨난 것으로 구덩이의 크기나 매몰된 유물의 양도 달랐고 여기에서 출토되고 있는 와당(瓦當)의 형식범위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기와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동안 함께 사용되었던 것들로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폐기되어 묻힌 일괄유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용시기가 한정된 것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삽도 1)



지금까지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는 20개소가 넘고 있는데 이 중 고식(古式)의 신라 와당(瓦當)들 만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폐와무지는 강당지 동북편기단 밖에서 2개소, 목탑지 서편에서 2개소와 기와들이 함께 섞인 폐전(廢塼)무지 1개소, 종루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단 서북편에서 1개소, 목탑지 동편의 창건가람 서회랑지 기단내에서 1개소, 강당동편건물지 북편에서 2개소가 발견되었다. 이 중 목탑지 동편의 폐와무지는 여러번에 걸쳐 묻힌 폐와무지로 교란이 심하여 본고에서는 제외시켰으며 또 회랑외곽지역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는 아직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시켰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와당(瓦當)들은 바로 앞에서 설명한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신라 와당들로 먼저 이들 와당(瓦當)에 시문된 문양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폐와(廢瓦)무지출토(出土) 와당(瓦當)

- 1)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 단판 A(圖 1)

중건가람 강당지 동북편의 폐와무지 중 서편의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파편 1점만이 출토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연판의 끝이 뾰족하고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협장(狹長)한 모습인데 8엽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간이 높게 돌출된 삼각형의 간판(間瓣)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연판모양의 음각선을 그어 연판을 연봉형으로 만들고 있어 얼핏보기에는 중판(重瓣)으로 보인다. 황룡사지에서 처음으로 출토되는 와당형(瓦當型)으로 폭이 좁고 높은 소문(素文)의 주연과 융기시켜 만든 좁은 자방을 두고 있는데 자방이 일부만 남아 있어 연자의 수는 알 수 없다.

◦ 단판 B(圖2)

후육(厚肉)한 8엽 연판이 새겨진 것으로 연판 중앙에 능선(稜線)이 시문되고 판단(瓣端)이 넓어지면서 끝이 날카롭고 높게 반전(反轉)을 이루고 있다. 간판(間瓣)도 역시 판두(瓣頭)를 높게 반전시키고 연판사이에 구획선을 두어 자방 외측에까지 연결시켰다. 연판의 볼륨에 비해 비교적 낮게 융기된 넓은 자방을 만들어 외연(外緣)에 원권(圓圈)을 두르고 1+6과(顆)의 연자를 정연하게 배치하였다. 소문(素文)의 폭이 좁은 주연을 높게 만들었다. 주로 강당지 북편과 목탑지 서편에서 발견된 폐와무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 단판 C(圖 3,4)

모두 8엽 연화문이 장식된 것으로 끝이 높게 반전되고 중앙에 능선(稜線)이 시문된 연판과 높게 돌출시킨 간판(間瓣), 융기된 자방 등 앞의 圖 2와 같은 형식의 와당(瓦當)으로 생각되나 전체적으로 볼륨이 약하고 세장(細長)한 모습이다. 圖 3은 높게 융기된 자방외연(子房外緣)에 圖 2와 마찬가지로 원권(圓圈)을 둘러 1+6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으나 圖 4는 자방의 크기가 커지면서 연판의 길이가 짧아 졌고 1+4과(顆)의 연자를 배치하고 있다. 주연은 역시 소문(素文)이나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강당지 동북편에서 발견된 2개의 폐와무지에서 한 두점씩 소량이 출토되었다.

◦ 단판 D(圖5)

연판의 길이가 짧고 중앙에 볼륨이 강조되어 전체적인 형태가 원형(圓形)에 가까우며 판단(瓣端)이 반전을 이루고 있으나 끝이 무디어 졌다. 연판 중앙에 가는 능선(稜線)이 시문되고 융기된 자방외측에 원권(圓圈)을 둘러 1+4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비교적 소형와당(小形瓦當)으로 소문(素文)의 높은 주연을 두었다. 강당지 북동편에서 발견된 2개의 폐와무지 중 동편의 폐와 무지에서만 2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E(圖 6,7)

연판이 볼륨이 없이 거의 평평한 모습이며 판근(瓣根)에서 위로 가면서 후육(厚肉)해져 판단(瓣端)이 전체적으로 융기되면서 약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다. 圖 6은 서로 연결되다시피 한 연판사이에 간판(間瓣)과 구획선을 두었으며 낮게 융기된 자방에 1+6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圖 7은 구획선에 의한 연판사이의 경계가 분명하며 중간이 약간 오목한 낮은 자방에 1+5과(顆)의 연자를 무질서하게 배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제된 맛을 잃고 있다. 모두 비교적 낮은 소문(素文)의 주연을 만들었다. 圖 6은 강당지 동북편의 폐와무지 중 동편에서 13점이 출토되었고 목탑서편 폐와무지 중 북편의 폐와무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圖 7은 강당지 동북편 폐와무지와 종루지 서북편 폐와무지에서 각각 1점씩이 출토되었다.

◦ 단판 F(圖 8)

매우 정제된 6엽연판이 장식된 것으로 판단(瓣端)이 넓고 둥글며 판근(瓣根)으로 가면서 좁아져 난형(卵形)에 가깝다. 판단에 돌기식 반전이 있고 중앙에 가는 능선(稜線)이 시문되었으며 행엽형(杏葉形)의 간판(間瓣)과 구획선(區劃線)을 두었다. 비교적 높게 융기된 작은

자방에 1+5과(顆)의 연자를 정연하게 배치하였으며 주연은 폭이 좁고 높게 만든 소문(素文)으로 일부에 희게 산화된 자연유 흔적이 남아 있어 고화도(高火度)로 소성된 와당(瓦當)임을 알 수 있다. 강당지 동북편에 폐와무지중 동편에서만 2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G (圖 9,10,11)

판단(瓣端)이 둥글게 곡면상(曲面狀)을 이루고 연판의 길이가 짧아 원형(圓形)에 가까운 6엽연판이 장식된 것들이다. 연판 중앙의 능선(稜線)이 높게 돌출되었으며 판두(瓣頭)가 서로 연결된 행엽형(杏葉形)의 간판(間瓣)과 구획선(區劃線)을 두고 있다. 모두 소문(素文)의 폭이 좁은 주연을 두고 연판권(蓮瓣圈)과의 사이에 넓은 구상권대(溝狀圈帶)를 이루고 있는데 주연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圖 9는 낮게 용기시킨 넓은 자방에 1+5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으며 圖10과 圖11은 작은 자방에 1+4, 1+5과(顆)의 연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연판내의 능선(稜線)이 굽어지고 자방이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균제성(均齊性)을 상실하고 있다. 圖9는 종류지 서북편의 폐와무지에서만 2점이 출토되었으며 圖 10과 圖11은 강당지 동북편 폐와무지 중 동쪽 폐와무지와 목탑지 서편의 폐와무지에서 다수가 출토되었다.

° 단판 H(圖 12, 13, 14)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세장(細長)한 모습의 8엽연판이 장식된 것들로 연판 중앙에 굽은 능선(稜線)이 시문되고 약화(略化)된 행엽형의 간판과 구획선을 두었다. 圖 12는 낮게 용기된 자방에 1+8과(顆)의 굽은 연자를 높게 돌기시켜 배치하였으며 圖13은 자방주위에 원권(圓圈)을 둘러 연판권과 구획을 짓고 1+4과(顆)의 연자를 역시 높게 돌기시켰다. 圖 14는 연판권과 구획하는 원권만을 둘러 평평한 자방을 만들고 1+6과(顆)의 연자를 배치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모두 소문(素文)의 좁고 낮은 주연을 만들었다. 圖12와 圖 13은 목탑지 서편의 북쪽 폐와무지와 강당지 동북편의 동쪽 폐와무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으며 圖14는 강당지 동북편의 동쪽 폐와무지에서만 1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I (圖15)

세장(細長)한 모습의 8엽연판과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평면형 자방 등 앞의 圖 14와 유사한 형태이나 간판(間瓣)이 크게 확대되고 연판의 볼륨이 약화되었다. 주연부의 탈락부분에 남아 있는 포흔으로 보아 주연을 별도로 만들어 적합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圖 14와 함께 강당지 북편의 동쪽폐와무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J(圖16)

연판의 윤곽이 없이 불룩하게 용기시켜 만든 8엽연판이 장식된 것으로 연판내에 십자형(十字形)의 문양이 시문되고 판간(瓣間)에는 T자형(字形)의 간판(間瓣)이 배치되었다. 원권(圓圈)을 둘러 평면형으로 만든 넓은 자방에 1+4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으며 소문(素文)의 주연은 좁고 낮게 만들었다. 목탑지 서편에서 발견된 폐전(廢塼)무지에서 보상화문전(寶相花文塼)과 함께 1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K (圖 17)

약화된 8엽의 소연판(小蓮瓣)이 장식된 것으로 연판모양의 구획선에 의해 양분(兩分)된 간판(間瓣)은 작은 삼각형으로 되었다. 연판내에는 3줄의 입맥이 표현되고 용기된 자방에 1+7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비교적 높게 만든 소문(素文)의 주연과 연판권 사이에 연주문(聯珠文)을 배치하여 이례적(異例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회흑색(灰黑色)을 띠는데 강당지 북편의 동쪽 폐와무지에서 5점, 목탑지 서편의 북쪽폐와무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L (圖 18,19)

비교적 협장(狹長)한 모습의 후육(厚肉)한 연판으로 볼륨이 연판 중앙에 강조되어 연판의 측에서 낮은 단을 이루며 판단(瓣端)이 경미하게 반전을 이루고 있다. 용기된 넓은 자방에 1+6, 1+8과(顆)의 연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다른 와당(瓦當)에 비해 와당면(瓦當面)이 넓고 폭이 넓은 소문(素文)의 주연을 만들었다. 圖18은 강당지 북편의 폐와무지를 제외한 각 폐와무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에서 75점이 출토되었으며 圖19도 圖18과 함께 26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M (圖 20,21)

간판(間瓣)이 확대되면서 연판의 볼륨이 약해지고 연판둘레에 화륜권(花輪圈)이 둘러졌다. 圖 20은 연판중앙에 능선(稜線)이 시문되고 용기된 자방에 1+6과(顆)의 연자가 배치되었으며 圖 21은 1+8과(顆)의 연자가 배치되고 주연에 연주문이 장식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에서 두종류가 다 출토되며 圖21은 종루지 서북편 폐와무지에서 다수가 출토되었다.

° 단판 N (圖 22)

연판 중앙에 시문된 종선(縱線)에 의해 연판이 2분(分)되면서 내곡(內曲)된 8엽연화문이 장식된 것으로 낮게 용기시켜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자방에 1+6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는데 연자 주위에 작은 원권(圓圈)을 둘러 장식하였다. 폭이 좁고 낮은 주연에 굵은 연주문(聯珠文)을 배치하였으며 연판과 같은 형태의 간판(間瓣)이 장식되었다. 종루지 서북편 폐와무지에서만 2점이 출토되었다.

° 단판 O (圖 23,24)

판단(瓣端)이 갈라지면서 경미하게 반전되고 용기된 넓은 자방에 3열(列)로 연자를 배치하였다. 圖23은 비교적 높게 용기된 자방에 1+5+10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으며 圖24는 낮은 자방에 1+5+8과(顆)가 배치되고 연판내에 인동문(忍冬紋)이 장식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모두 낮은 주연에 굵은 연주문(聯珠文)을 돌렸다.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와 종루지 서북편의 폐와무지에서 각각 소량이 출토되었다.

2) 복판연화문(複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圖 25,26)

판단(瓣端)이 둥글게 처리되고 볼륨이 판중(瓣中)에 강조되어 원형(圓形)에 가까운 후육(厚肉)한 모습의 6엽연판으로 연판 중앙에 능선(稜線)을 두어 연판을 좌우로 나누고 각각 돌기된 자엽(子葉)을 장식하였다. 연판 둘레에 끝이 높게 반전된 화륜권(花輪圈)을 둘러 장식하고 판두(瓣頭)가 높게 반전된 간판(間瓣)과 구획선을 두었다. 모두 소문(素文)의 비교적 높은 주연을 만들었으며 圖25는 높게 용기된 자방 둘레에 주문대(珠文帶)를 돌리고 1+8과(顆)의 굵은 연자를 정연하게 배치하였으나 圖 26은 원권(圓圈)을 둘러 만든 평면형 자방에 1+8과(顆)의 작은 연자를 배치하였다. 圖 25는 회백색이나 圖 26은 회흑색으로 전면에 자연 유 흔적이 있다. 목탑지 서편의 북쪽 폐와무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3)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 중판 A (圖 27,28,29)

판단(瓣端)이 갈라지면서 반전(反轉)되고 연판 중앙에 설정된 능선(稜線)에 의해 2분(分)되면서 내곡(內曲)된 8엽단판으로 외판(外瓣)을 만들고 이와 서로 엇갈리게 2개의 자엽(子葉)이 장식된 복엽으로 내판(內瓣)을 만들었다. 외판(外瓣)의 연판사이에는 Y형(形)의 간판(間瓣)을 높게 부조(浮彫)시켜 배치하고 짧은 구획선을 넣었다. 높게 용기된 자방은 원권(圓圈)을 둘러 3분(分)하고 1+6+16과(顆) (圖27), 1+6+19과(顆)(圖28), 1+5+12과(顆)(圖29)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모두 주연에 연주문(聯珠文)을 배치하고 있는데 圖 28과 圖29는 연주문 주

위에 원권(圓圈)을 돌려 장식하였다. 圖 27은 강당지 북편의 폐와무지를 제외한 각 폐와무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에서 186점이 출토되었다. 圖 28은 목탑지 서편의 폐와무지와 강당지 북편의 동쪽 폐와무지에서 소량이 출토되었으며 圖 29는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와 종루지 서북편의 폐와무지에서 각각 2점씩 출토되었다.

° 중판 B(圖 30)

앞의 A형식과 같은 형태의 연관이 장식된 것이나 내판(內辦)에 장식된 자엽의 표현이 약화되었고 외판에 약화된 인동문(忍冬紋)이 장식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주연에 장식된 연주문(聯珠文) 주위에 2중으로 원권(圓圈)을 돌려 장식하였으며 원권(圓圈)에 의해 3분(分)된 자방에 1+5+10과(顆)의 작은 연자를 배치하였다. 종루지 서북편에서 발견된 폐와무지에서만 2점이 출토되었다.

° 중판 C (圖 31)

2개씩의 자엽(子葉)이 장식된 10엽의 복판(複辦)을 서로 엇갈리게 내외로 배치한 것으로 용기된 자방 외연에 주문대(珠文帶)를 돌리고 1+5+10과(顆)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비교적 좁게 만든 주연에 연주문을 돌리고 연관권과의 사이에 가는 원권(圓圈)을 돌려 주연부와 구획하였다. 종루지 서북편이 폐와무지에서만 1점이 출토되었다.

4)귀면문(鬼面文) 원와당(圓瓦當)(圖 32,33)

길게 찢겨진 입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귀신(鬼神)의 형상을 의장화(意匠化)시킨 것으로 圖33은 한줄의 원권(圓圈)을 돌려 내외(內外)로 구분하여 내측(內側)에 귀면문(鬼面文)을 시문하고 외측(外側)에 2개의 자엽이 장식된 14엽의 복판연화문을 배치하였다. 주연은 소문(素文)으로 높게 만들었으며 목탑지 서편의 남쪽 폐와무지와 종루지 서북편의 폐와무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5) 당초문(唐草文) 평와당(平瓦當)(圖34,35)

와당(瓦當) 중앙에 와형(渦形)을 이루는 가지를 넣어 중심식(中心飾)을 만들고 이에 연결되어 좌우로 뻗어나가는 피상형(波狀形)의 당초(唐草)줄기와 이에서 분기(分岐)되어 반전되는 가지를 대칭이 되도록 전개시킨 것으로 아래위에 2줄씩의 돌선(突線)을 넣어 주연을 만들고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2개 모두 유사한 형태이나 圖34가 폭이 약간 좁다. 목탑지 서편의 남쪽폐와무지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며 다른 폐와무지에서도 소량씩이 출토되었다.

3. 폐와(廢瓦)무지출토(出土) 와당(瓦當)의 연대문제(年代問題)

앞에서 살펴 본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은 형식상 고신라시대(高新羅時代)에서 통일기(統一期)까지의 연대폭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폐와무지들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들이 거의 섞이지 않고 폐와들만이 묻혀 있었던 것으로 각 폐와무지 윗층에는 이러한 구덩이가 형성된 이후의 생활면인 구지표층(舊地表層)이 형성되어 있고 교란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곳에 여러번에 걸쳐 폐와를 묻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폐와무지들은 건물의 보수 중창 또는 보수 중창이 아니더라도 번와(飜瓦) 등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폐와들이 일시에 발생하게 되자 이들을 한구덩이에 묻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은 물론 제작시기는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나 폐기되기 직 전까지는 모두 같이 사용되었던 와당(瓦當)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와는 비교적 수명이 긴 것이어서 천재나 화재 또는 건물의 중축 보수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며 또 모든 건물지에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문양의 와당(瓦當)들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각종 문양의 와당(瓦當)들은 어느 정도의 선후관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일정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었던 것들로 그 사용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신라시대에서 통일기에 이르는 와당(瓦當)의 형식변천과정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신라기와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한 고찰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모든 기와들을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폐와무지의 형성시기와 출토된 와당(瓦當)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각 건물지에 대한 토층조사 도중 출토된 와당(瓦當)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선후관계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룡사지에서 발견된 신라와당들만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폐와무지는 앞서 보았듯이 건물지 기단 주변이나 건물지와 건물지사이의 공지(空地)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종루지 서북편에서 발견된 폐와무지는 종루지 서북기단과 일부 중복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폐와무지는 발굴조사 도중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화공사를 위해 건물지 주변을 정리(整地)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윗층의 일부 유물들만 수습되었고 건물지와 중복상태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은 형식상 고신라시대 부터 통일기까지의 한정된 형식들이며 건물지 내부유구 조사시 교란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건물이 세워진 후에 폐와를 묻었다면 건물지 주위의 넓은 공간을 놓아두고 이렇게 건물 가까이 묻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폐와무지는 종루가 세워지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루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 지역은 건물이 없었던 공지(空地)였음은 이미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그러므로 이 폐와무지는 경덕왕(景德王) 13년(A.D754)에 황룡사종7)이 주조(鑄造)됨에 따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루지보다 앞서는 것이며 이와 비슷한 유물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다른 폐와무지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와당(瓦當)들은 이 시기, 즉 8세기 중엽이전에 제작 사용되었던 것들로 그 하한(下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 소개하는 폐와무지에서 출토되는 와당(瓦當)들은 황룡사가 창건되는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 이전에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선후관계와 제작연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모두 24종류가 출토되었다.

圖 1은 연판의 형태로 보아 고구려의 고지(故址)에서 출토되는 와당형(瓦當形)과 많은 연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음각선을 넣어 연봉형으로 표현된 연판은 무용총(舞踊塚)의 천정(天井)에 그려진 연꽃그림과 흡사하다.(삽도 2)

7) 一然, 《三國遺事》 卷第四 新羅本紀 景德王條 「天寶十三甲午皇龍寺鍾長一丈三寸 厚寸入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삽도 2. 舞踊塚天井의 연꽃그림

삽도2. 무용총천정(舞踊塚天井)의 연꽃그림

그런데 이 와당(瓦當)과 같은 형식의 와당(瓦當)이 중건가람의 금당지⁸⁾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지는 동금당지(東金堂址) 창건 기단토 안에서 출토되고 있고 다른 폐와무지에서는 한점도 출토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금당지 조성연대와 비슷한 6세기 후기 이전에 제작 사용되었던 와당(瓦當)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황룡사 창건와로도 볼 수 있는것이다. 圖2는 연관의 형태가 백제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식와당(古式瓦當)과 유사하나 날카롭게 반전된 판단(瓣端)이나 연관 중앙의 능선(稜線) 등 고구려적인 요소도 열보인다. 이 와당(瓦當)도 동금당지 창건기단내에서 다수가 출토되고 있고 각 폐와무지에서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황룡사가 창건되는 6세기 중엽에 圖1과 함께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며 생존기간이 길었던 황룡사의 대표적인 고대와당형(古代瓦當型)으로 생각된다.

圖 3,4도 볼륨이 약화되어 연관이 세장(細長)해 졌으나 圖 2와 같은 유형의 와당(瓦當)이다. 圖 1,2와 함께 같은 폐와무지에서 소량이 출토되고 있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제작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圖 5,6,7은 앞의 형식에서 변형된 퇴화형식으로 이와 유사한 유형들이 통일초에 만들어지는 안압지(A.D674)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圖 8은 분황사(芬皇寺)(A.D 630)에서 출토되어 창건와당으로 추정되고 있으며⁹⁾ 이와 같은 와당(瓦當)이 안압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세기 전반기에 제작되어 통일초에 까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圖 9는 신라(新羅)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신라적인 와당형(瓦當型)¹⁰⁾으로 월성지(月成址), 분황사(芬皇寺) 등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고 안압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와당(瓦當)들이 출토되고 있어 7세기 전반기에 제작되어 통일초까지 사용된 와당(瓦當)으로 생각된다. 圖10,11은 圖 9의 퇴화형식으로 안압지에서 같은 형식의 와당(瓦當)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¹¹⁾. 圖 12,13,14는 8엽연화문와당(瓦當)으로 연관의 수에서 차이를 보일 뿐 앞의

8) 一然,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條 「寺記云 眞平王五(六)年甲辰 金堂造成……」

9) <日本佛教美術原流> 奈良國立博物館, 昭和 53, p.37

10) 金和英, 《韓國蓮花文研究》, 이화여자대학교, 1976 p.37

圖 10,11과 같은 유형으로 간주되며 역시 안압지에서 같은 유형의 와당(瓦當)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통일초까지 사용되었던 와당형(瓦當形)으로 생각된다.

圖 16은 목탑지 서편에서 발견된 폐전(廢塼)무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연판내에 문양이 장식되고 연판자체가 퇴화된 표현(表現)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이 와당(瓦當)과 함께 보상화문전편(寶相花文塼片)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7세기 후반에 들어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圖 17은 연판의 모습이나 연판권 주위에 둘러진 연주문(聯珠文) 등 이례적(異例的)인 와당형(瓦當形)으로 고려시대의 와당(瓦當)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자방과 주연이 고식와당(古式瓦當)의 형태를 따르고 있어 아마도 통일초에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와당형(瓦當形)이 아닌가 한다.

圖 18,19,20,21은 연판주변에 단이 지거나 화륜권(花輪圈)이 둘러지고 주연에 연주문(聯珠文)이 배치되는 등 장식성이 가미되기 시작하는 와당(瓦當)들로 고신라 말기에서 통일초에 해당하는 과도기적인 와형(瓦型)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교적 고식(古式)의 모습이 남아 있는 圖 18,19는 7세기 후반에 출현하는 와당형(瓦當形)으로 보여지며 圖 20,21은 통일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圖 22,23,24는 내곡(內曲)된 연판, 판단(瓣端)이 갈라지면서 연판내에 인동문(忍冬紋)이 장식되고 주연에 주문이 장식되는 등 전형적인 통일초 양식을 보이고 있는 와당형(瓦當形)들로 황룡사에서는 그 생존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복판연화문(複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복판형식은 圖25와 圖26의 두 종류 뿐이다. 이들 두 와당(瓦當)은 서로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용시기가 비교적 길었던 대표적인 고식와당형(古式瓦當形)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형식의 와당(瓦當)은 통일초기 유적지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고 반월성지(半月成址)나 황룡사(皇龍寺)와 같이 고신라시대에 조영된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며 특히 황룡사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

3) 중판연화문(重瓣蓮花文) 원와당(圓瓦當)

圖 25만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유형의 와당(瓦當)들로 모두 5종류가 출토되었다. 안압지나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유지(建物遺址)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일신라 와당형(瓦當形)으로 황룡사지의 폐와무지 출토 와당(瓦當) 중 가장 제작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8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귀면문(鬼面文) 원와당(圓瓦當)

한 폐와무지에서 두 종류가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圖 32는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소문(素文)의 높은 주연, 정제된 귀면(鬼面)의 형상 등 통일신라시대 초기 사찰인 사천왕사(四天王寺)(A.D679)에서 출토된¹²⁾ 귀면문(鬼面文) 원와당(圓瓦當)에 비해 앞서는 것으로 황룡사지에서 7세기 전반경에는 제작되기 시작하여 당시에 상당히 유행하였던 와당형(瓦當形)으로 간주된다.

5) 당초문(唐草文) 평와당(平瓦堂)

원줄기나 분기(分岐)된 가지끝에 인동(忍冬)이나 보상화(寶相花)같은 부문(副文)이 장식되지 않은 초기적인 형태로서 지금까지 고신라시대 건물유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고 안압지

11) 金誠龜, 〈雁鴨池出土古式瓦當의 形式的 考察〉 《美術資料》 29호, 國立中央博物館, 1981,p.20

12) 金誠龜, 〈統一新羅時代의 瓦塼研究〉 《考古美術》 162, 163 韓國美術史學會 1934, p.180 圖 64

와 같은 통일초기 유적에서 이러한 초기양식의 평와당(平瓦堂)이 본격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황룡사에서 통일신라 초기에 들어서면서 제작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圖 1,2 모두 같은 문양형식으로 크기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며 특히 圖 1의 평와당(平瓦堂)은 전체길이가 44cm나 되고 있어 통일초기에 황룡사에서 사용된 평와(平瓦)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

결 언(結言)

지금까지 황룡사지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신라와당(瓦當)들을 소개하고 각 유형별로 그 선 후관계와 제작연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 폐와무지출토 와당(瓦當)들은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중엽이전까지 이르는 한정된 시기에 함께 사용되었던 와당(瓦當)들로 이들을 통하여 대표적인 고신라시대의 와당형(瓦當形)과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신형식(新形式)의 대표적인 와당형(瓦當形)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황룡사지에서 사용된 고식연화문원와당(古式蓮花文圓瓦當)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와당형(瓦當形)에서 그 형태를 달리 하면서 변화해가는 과정도 열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 소개한 폐와무지출토 신라와당(瓦當)들은 앞으로 다른 황룡사지 출토 신라와당(瓦當)을 정리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함께 출토된 평와(平瓦)와 원와(圓瓦)들도 이 와당(瓦當)들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편년이 가능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폐와무지에서 출토된 신라와당(瓦當)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圖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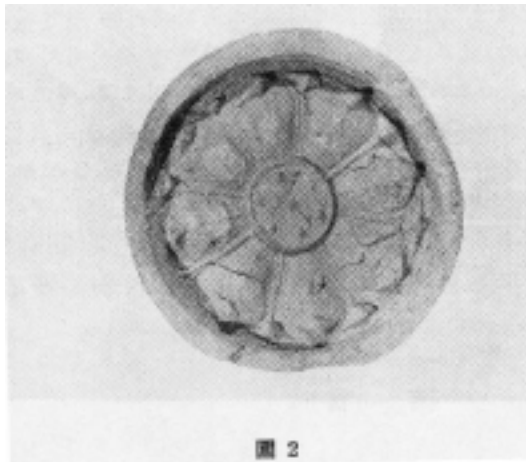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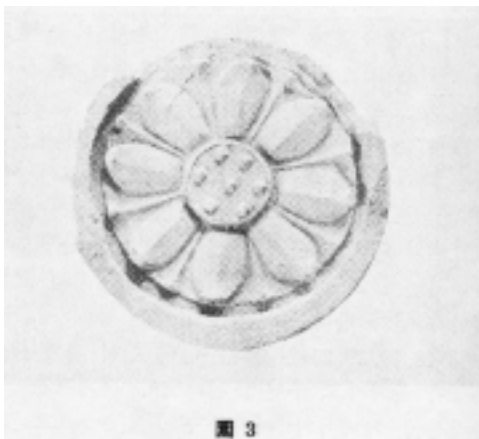


圖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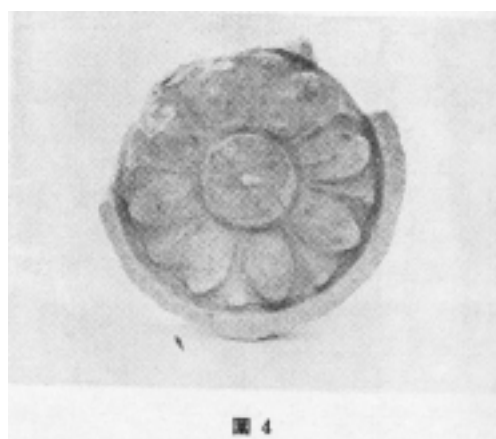


圖 4



圖 5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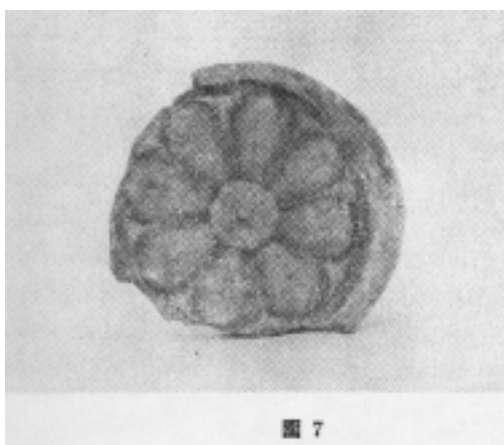


圖 7



圖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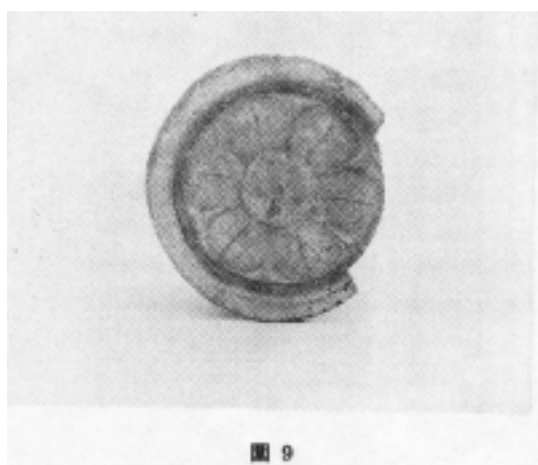


圖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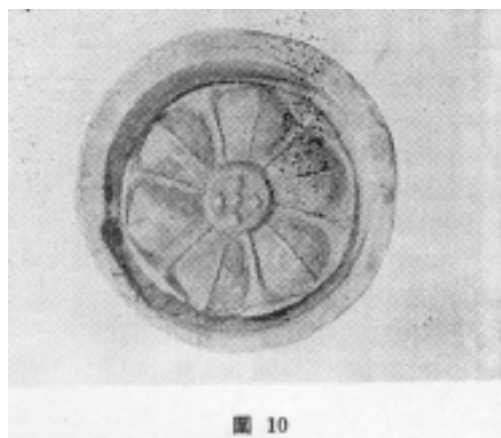


圖 10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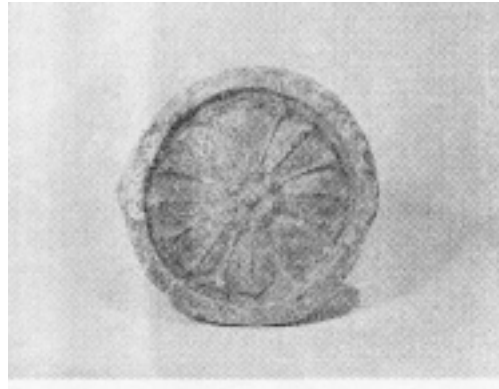


圖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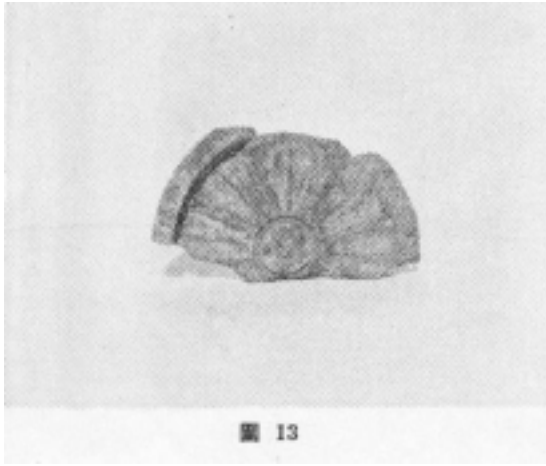


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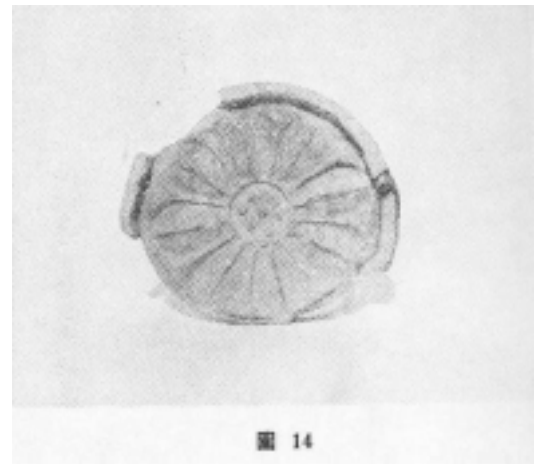


圖 14



圖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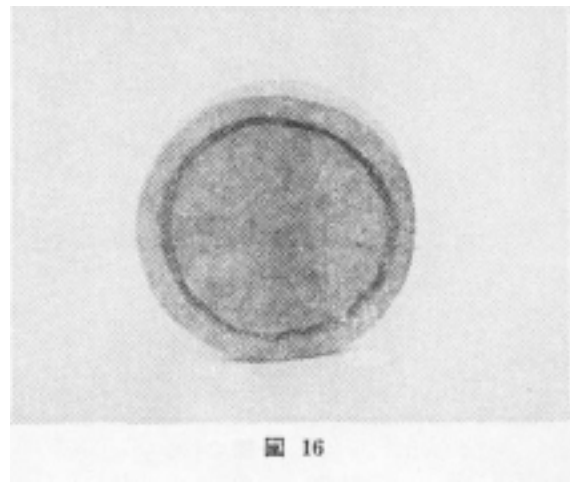


圖 16



圖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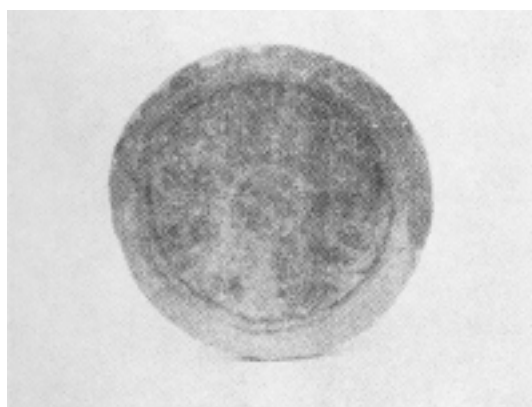


圖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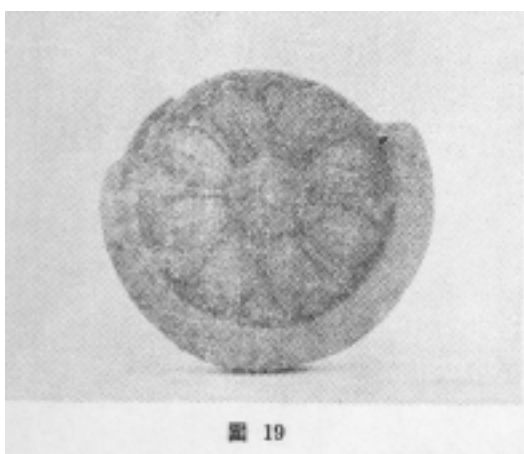


圖 19



圖 20



圖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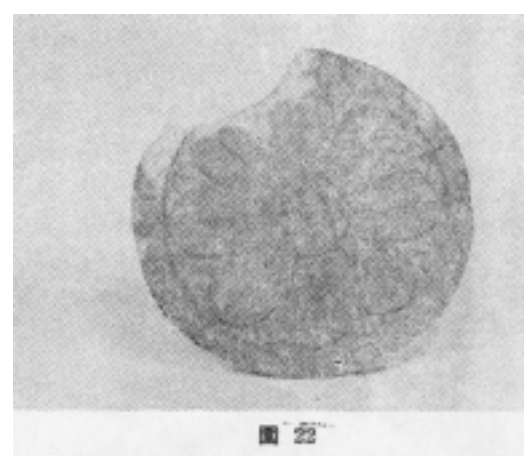


圖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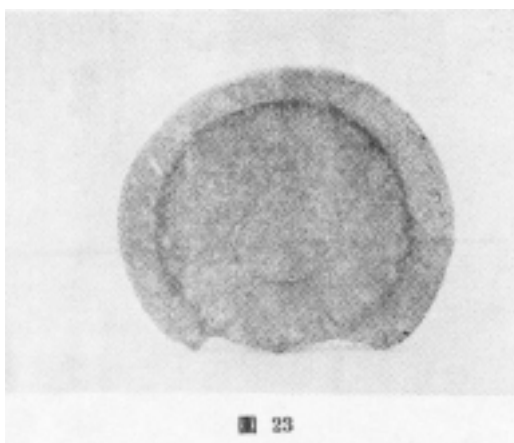


圖 23



圖 24



圖 25



圖 26



圖 27



圖 28



图 29



图 30



图 31



图 32



图 33



图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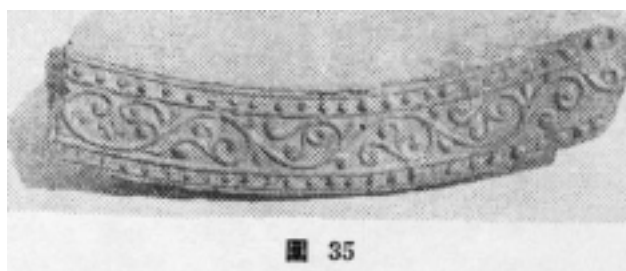


图 35